

## SFL 기반 한-영 쓰기방식 차이에 대한 인식 함양 및 문학번역을 위한 교육적 함의\*

마 승 혜  
(동국대)

### 1. 서론

한국 문학계에서는 소설 『채식주의자』가 2016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후 이 책의 작가와 번역가뿐만 아니라 문학번역 전체가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수상 이후 원작인 『채식주의자』와 번역 *The Vegetarian*의 판매고가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번역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Yun 2017). 원작과 번역 모두 그 탁월함을 인정받아 수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은 오역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Armistead 2018). 물론, 번역에서 의미가 원작과 달리 오역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The Vegetarian*은 원문의 느낌과 감정을 온전히 잘 전달하고, 성공적으로

독자들에게 수용되었으며, 향후 문학번역 발전을 위해 눈여겨볼 점이 많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번역가인 데버러 스미스(Deborah Smith)는 로스앤젤레스 리뷰 오브 북스(Los Angeles Review of Books) 기고문에서 자신의 번역에 대해 회고하며,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은 애매함(ambiguity), 반복(repetition), 평이한 산문(plain prose)을 선호하는 언어에서 명확함(precision), 간결함(concision), 운율(lyricism)을 선호하는 언어로 옮기는 과정”(Smith 2018)이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한국어와 영어 간 차이는 비단 스미스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도 다수 지적한 바 있고(이창수, 2006; 이희재, 2009; Hara & Kim, 2004; Kirk, 2004; Kim & Sherman, 2007; Vaid et al., 2008; Mah 2015, 2016) 번역 시 언어 간 차이점을 반영하는 것은 번역 수용성을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영어와 한국어 간에는 언어 사용 상 차이점이 뚜렷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번역 학습자들 또는 번역 경험이 많지 않은 번역가들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는 경향을 보이고, 결과적으로 목표 언어로 원문의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어딘가 어색한 번역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된다(Kim 2009). 특히 문학번역은 원문 스타일을 고수하지 않고, 여러 번역 방법을 적용해볼 수 있는 분야(Venuti 1995)이기 때문에, 문학번역 시 영어와 한국어 간의 쓰기방식 차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한다면, 향후 다양한 문학번역 전략에 대한 교육 및 학습 시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언어를 통해 전달하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영어 쓰기방식 차이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번역 교육에 적용해 본 후, 학습자들의 쓰기 방식 차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교육적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SFL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SFL에서 사용되는 메타언어(metalinguage)를 교육 시 활용할 경우, 이는 학습자들에게 언어에 대해 과학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개념적 도구가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자신의 텍스트를 구성해가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이렇듯 SFL의 기본 개념을 번역 및 쓰기 교육에 활용한 교육의 효용성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Williams 1998, 2004; Gibbons, 2006; Hammond, 2006; Polias & Dare, 2006; Moore & Schleppegrell, 2014).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4359).

이러한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모색해볼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영어 쓰기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SFL을 기반으로 차이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본다. 둘째, 한국어-영어 쓰기 방식에 대한 학습자 인식 현황은 어떠한가? 학습 전 설문조사를 통해 인식 현황을 조사해본다. 셋째, 한국어-영어 쓰기 방식 차이에 대한 학습 후 학습자들의 인식과 번역 결과물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학습 후 설문조사를 통해 인식 변화를 조사해보고, 학습 전과 후의 학습자 번역 결과물을 분석하여 학습 효과를 살펴본다.

## 2. SFL 기반 한-영 쓰기 방식 차이

체계기능언어학(SFL)은 언어가 맥락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SFL에서 언어란 “사회적 기호(social semiotic)” (Halliday 1978: 108-9)이고, “다양한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 자원”(Lemke 1992: 82)이다. 따라서 SFL은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 내에서 언어, 텍스트, 맥락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특히 언어 교육 및 담화 분석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고(Woodward-Kron 2009; Coffin & Donohue 2012; Kazemian & Hashemi 2014; Crane 2016), 번역 분석 및 연구에도 적용되고 있다(Hatim & Mason 1990; House 1977/1997; Baker 1992; Trosborg 2002).

구체적으로, SFL에서는 언어 사용을 통해 형성된 의미를 세 개 층위로 구분하는데, 이는 경험적(experiential), 대인적(interpersonal), 그리고 텍스트적(textual) 의미이다(Halliday 1994). 경험적 의미는 사건, 상태, 참여자를 묘사함으로써 표현된다. 즉, 누가(참여자 1), 무엇을, 누구에게(참여자 2), 어떻게, 언제, 왜 행하였는지 그 경험을 묘사하는 의미가 경험적 의미인 것이다. 대인적 의미는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서로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방식, 참여자가 주변 인물이나 사물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을 표현하는 의미를 말한다(Thompson 2004). 마지막으로 텍스트적 의미는 정보 흐름과 연관된 것으로, 화자/저자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메시지가 일관되게 연결되고 있는 지 등을 나타내는 의미를 말한다(Thompson 2004).

이 세 가지 의미 차원에서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은 언어마다 다르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에도 각 언어별 쓰기방식을 적용하여 번역한다면 훨씬 자연스러운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 언어 쓰기방식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은 번역 시 원문 구조를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결국 지나치게 직역을 하거나 목표 언어에서 자연스럽게 읽히는 번역을 하여 번역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번역문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Kim 2009: 126). 그러나 번역가는, 특히 문학번역가는 이 세 가지 의미 차원에서 언어별 의미 표현 방식 차이를 인식하고 원문을 “정당하게 조작(legitimately manipulate)”(House 2001: 141)할 수 있다(Kim 2009).

따라서 경험적, 대인적, 텍스트적 의미 차원에서 한국어와 영어 간 쓰기방식 차이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 차이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함양시킨 후, 문학번역 시 지나치게 원문에만 고수하지 않고, ‘정당하게 조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2.1 경험적 의미 차원에서 한국어와 영어 쓰기 방식 차이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험적 의미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디서, 언제, 왜, 어떻게’와 관련된 것, 즉 인물의 경험을 묘사함으로써 표현되는 의미를 말하고, 이는 ‘동사성(transitivity)’을 분석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 이 동사성 체계에서 ‘누구’는 ‘참여자(participant)’를 말하고, ‘하다’는 동작은 ‘프로세스(process)’를 통해 구체화되며,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와 관련된 의미는 ‘상황(circumstances)’으로 설명된다. 동사성 체계에는 총 6가지 프로세스 타입이 있다. 물질적(material), 정신적(mental), 구두적(verbal), 관계적(relational), 존재적(existential) 프로세스이다(Halliday 1994).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프로세스는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 프로세스인데, 이 두 프로세스의 경우 한국어-영어 번역 시 프로세스 행위주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선행연구(이창수 2006; Master 2001)가 있기 때문에 이 두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다.

SFL에서는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성분마다 ‘기능적 명칭(functional labeling)’, 즉 사용되는 메타언어가 있다(Halliday 1994; Thompson 2004). 우선 물질적 프

로세스는 ‘차다(kick)’, ‘달리다(run)’, ‘운전하다(drive)’, ‘그리다(paint)’, ‘보내다(send)’와 같이 참여자가 물리적 행동을 하는 것을 묘사하는 구문이다. 이 프로세스에서 참여자는 ‘행위자(actor)’라고 지칭하고, 행위자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것을 ‘목표(goal)’라고 한다. 예문을 통해 기능적 명칭을 살펴보자.

I	kicked	a ball	in my yard
Actor	Process: material	Goal	Circumstance: location

위 예문에서 ‘나(I)’는 ‘차다(kick)’라는 물리적 행위 프로세스의 ‘행위자(actor)’이고, 그 행위의 영향을 받는 ‘공(ball)’은 ‘목표(goal)’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위치인 ‘마당(yard)’은 ‘상황(circumstance)’이라고 지칭한다.

다음, 정신적 프로세스는 ‘느끼다(feel)’, ‘생각하다(think)’, ‘좋아하다(like)’, ‘기쁘게 하다(please)’, ‘희망하다(hope)’와 같이 참여자가 정신적·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보여주는 구문이다. 이 프로세스에서 참여자는 ‘감지자(senser)’라고 지칭하고, 감지자가 느끼는 것을 ‘현상(phenomenon)’이라고 한다.

I	felt	the hot weather
Senser	Process: mental	Phenomenon

위 예문에서 ‘나(I)’는 ‘느낀다(feel)’는 정신적 프로세스의 감지하는 참여자이므로 ‘감지자(senser)’라고 하고, 감지자가 느끼는 ‘더운 날씨(the hot weather)’는 ‘현상(phenomenon)’이라고 지칭한다.

경험적 의미 차원에서 한국어와 영어 간에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 중 하나는 행위자 또는 감지자 역할을 하는 주체이다. 한국어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체 또는 인격을 부여받은 기관만이 주체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이창수 2006; 이희재 2009), 영어에서는 사물, 상황, 추상적인 아이디어 등 무생물이 주체역할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Master 2001). 따라서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에는 영어 쓰기 방식에 맞추어 다양한 주체를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에서 생물 주체가 행위자로 등장하는 구문을 영어로 번역할 때에 한국어 문장의 부사구를 무생물 행위자로 바꾸어 번

역하는 전략이 그 중 하나이고 『채식주의자』 번역 시에도 이와 같은 전략이 사용된 번역 사례를 볼 수 있다.

원작에서 ‘발에 물컹한 것이 밟혀 나는 말을 멈췄다’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이 문장을 직역해본다면, 여러 번역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례로 ‘I stopped in mid-sentence because of something squashed under my foot’와 같이 번역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The Vegetarian*에서는 ‘Something squashed under my foot stopped me in mid-sentence’라고 번역한 것이다. 즉, ‘물컹한 것이 밟혀’라는 원인 부사구가 행위자가 된 것이다.

(ST) 발에 물컹한 것이 밟혀 나는 말을 멈췄다.

(literal) I stopped in mid-sentence because of something squashed under my foot.

(TT) Something squashed under my foot stopped me in mid-sentence.

이렇듯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그 경험을 설명해주는 경험적 의미 차원에서 행위주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미상 큰 차이는 없더라도 느낌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창수(2006)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에는 역동성이 더해진다고 언급 하였다. 따라서 쓰기 방식 상 차이점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제고시킨다면, 어떻게 원문 구조에 집착하지 않고 번역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학습자들에게 그 출발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2.2 대인적 의미 차원에서 한국어와 영어 쓰기 방식 차이

SFL에서 화자 및 저자의 긍정적/부정적 태도나 인물에 대한 판단 또는 사물에 대한 평가를 표현하는 언어적 자원을 ‘평가어(appraisal)’라고 한다. 이 평가어 체계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주요 카테고리는 화자 및 저자의 감정, 즉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Attitude)’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머지 두 카테고리는 감정 표현의 ‘강도(Graduation)’를 나타내는 것과 발화에 있어서 ‘관여(Engagement)’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Martin & White 2005). 본고에서는 주요 카테고리인 ‘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그 이유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 시 화자 및 저자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태도’에 있어서 두 언어 간 차이가 있고, 원문 독자의 반응과 목표 독자의 반응이 등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차이점이 번역 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이창수 2007; 마승혜 2014).

평가어를 구성하는 주요 언어자원인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또 세 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는 ‘감정(affect)’, ‘판단(judgement)’, ‘평가(appreciation)’이다. 마틴과 로즈(Martin & Rose 2003: 24)는 ‘감정’이란 텍스트에 등장하는 화자의 행복함, 슬픔, 흥미로움, 지루함과 같은 긍정적/부정적 감정 표현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행복하다’, ‘불안하다’, ‘기쁘다’, ‘안타깝다’ 등 감정 표현과 관련된 모든 표현을 말한다. ‘판단’이란 등장인물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이 ‘정직하다’, ‘이상하다’, ‘능력이 있다’, ‘훌륭하다’ 등 인물에 대해 판단하는 표현들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평가’란 사물 또는 상황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내리는 표현들을 일컫는 것으로, 어떤 것이 ‘사랑스럽다’, ‘추하다’, ‘아름답다’, ‘끔찍하다’와 같이 사물 및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표현들을 말한다. 인물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번역 시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번역을 읽는 독자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글에서 감정을 실은 단어 및 구문을 사용하는 방식이 언어마다 상이하다(Altarriba et al. 2003; Vaid et al. 2008). 영어처럼 저맥락 문화(low-context cultures)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은 감정표현을 좀 더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하지만, 한국어와 같이 고맥락 문화(high-context cultures)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은 좀 더 간접적인 표현 방식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Hara & Kim 2004; Kim & Sherman 2007; Vaid et al. 2008)<sup>1)</sup>. 즉, 한국어는 감정 표현 시 앞 뒤 맥락적인 요소들을 많이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선호하지만, 영어는 감정 표현 그 자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감정을 영어로 번역할 때에는 좀 더 명시적이

1)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Hall 1977)은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저맥락/고맥락(low context/high context)’ 개념을 제시하였다. “저맥락 문화의 소통방식은 말(words)에 높은 가치를 두며 직접적이고 정확하며 명쾌한 메시지 표현을 선호한다. 고맥락 문화에서는 정보의 대부분이 맥락에 속하거나 개인에게 내재화되어 있으며 명확한 메시지로 구현되는 경우가 드물다”(이지영 2016: 104).

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줄 필요가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영어로 번역 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평가어를 보완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관광 안내문이나 청자를 설득하는 연설문을 영어로 번역할 때 평가어를 보완해주지 않으면 번역문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독자에게 호소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이창수 2007). 평가어를 보완해주는 방법 중 하나가 문장 내에 적절한 평가어를 추가해주는 것이다(Klaudy 2008; Munday 2012). *The Vegetarian*에서도 이와 같은 전략을 채택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원작에서 ‘나는 혼자 어두운 부엌에 남아 그녀의 흰 뒷모습을 삼킨 방문을 바라보았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를 직역해보면, ‘I was left alone in the dark kitchen, looking on as her retreating figure was swallowed up through the door’라고 번역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번역가는 ‘I was left alone in the dark kitchen, looking helplessly on as her retreating figure was swallowed up through the door’라고 번역하며 ‘helplessly’를 추가하고 있다. 즉 원작에서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화자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결국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화자의 감정을 부정적 평가어를 추가하여 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ST) 나는 혼자 어두운 부엌에 남아 그녀의 흰 뒷모습을 삼킨 방문을 바라보았다

(literal) I was left alone in the dark kitchen, looking on as her retreating figure was swallowed up through the door

(TT) I was left alone in the dark kitchen, looking helplessly on as her retreating figure was swallowed up through the door

이처럼 영어 번역 시 대인적 의미 차원에서 감정 표현을 좀 더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함양된다면 목표 문화권 독자에게 좀 더 호소력 있는 번역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3. 텍스트적 의미 차원에서 한국어와 영어 쓰기 방식 차이

텍스트의 구성, 정보의 흐름과 관련된 텍스트적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는 응결성(cohesion)이다. “응결성이란 텍스트에서 화자가 경험적, 대인적 의미를 전달할 때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하며 전달하는가를 보여주는 언어적 도구이다”(Thompson 2004: 179). 텍스트의 응결성은 메시지를 형성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첫 번째, 응결성은 텍스트에서 이전에 언급된 것과 이후에 언급된 것의 연결 고리를 보여주어 때문에 메시지 형성에 있어서 중요하고, 두 번째, 메시지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텍스트 상에는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연결해줌으로써 담화를 이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Mirzapour & Ahmadi 2011: 24).

그런데 언어마다 선호하는 응결 장치(cohesive devices)가 다르고, 응결성을 구성해가는 방식이 다르다(Hasan 1984; Kirk 2004). 따라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게 되면 응결성 변이(cohesion shift)가 발생하게 되고, 특정 언어에서 선호하는 응결 장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쓰기를 하면 결과물이 어색할 수 있다(Hinkel 2001; Swales & Feak 2004). 한국어-영어 번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어에서 선호하는 응결 장치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한국어 원문 그대로 번역할 경우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더라도 어딘가 어색한 번역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응결 장치에 대한 인식 함양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텍스트에서 응결성을 만들기 위해 한국어에서는 동어 반복이라는 장치를 선호하지만, 영어에서는 유의어 또는 부분어를 좀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이희재 2009; Mah 2016; Mirzapour & Ahmadi 2011). 뿐만 아니라, 영어의 경우 텍스트 내에서 연결 고리를 독자에게 알려주는 응결 장치를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Kirk 2004: 175). 예를 들어, “What people want from the government is frankness. They should explain everything to the public”(Mirzapour & Ahmadi 2011: 246)이라는 영어 문장에서 ‘국민’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기 위해 ‘people’의 유의어인 ‘the public’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국민이 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솔직함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한다’라고 하여 ‘국민-국민’이라는 동어 반복 응결장치를 사용할 것이다. 이처럼 유의어를 반복하여 텍스트의 응결성을 형성하는 영어 쓰기 방식의 특성을 반영한 사례를 *The Vegetarian*에서 찾아볼 수 있다.

(ST) “응? 뭐 하고 있느냐구?”

나는 오싹한 추위를 느끼며 아내가 있는 쪽을 보았다. 잠과 취기가 가셨다.

이 부분을 직역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번역해볼 수 있을 것이다.

(literal) “Hello ? I asked what you’re doing?”

It was cold enough as it was, but at the sight of my wife, any lingering, alcohol-induced drowsiness swiftly passed.

그런데 실제 번역에서는 ‘cold’의 유의어인 ‘chilling’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응결성을 강화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다.

(TT) “Hello? I asked what you’re doing?”

It was cold enough as it was, but the sight of my wife was even more chilling. Any lingering, alcohol-induced drowsiness swiftly passed.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번역에서 ‘cold-chilling’이라는 유의어 반복 응결 장치를 사용하여 텍스트 내 응결성을 강화시켜준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상황에 대한 평가어를 추가하여 그 상황을 더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문장 간 연결 고리를 더해주어 텍스트적 차원에서의 응결성을 강화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어를 사용하여 텍스트성을 강화한 사례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경험적, 대인적, 텍스트적 의미 차원에서 한국어와 영어 간 쓰기 방식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The Vegetarian*에서는 이 차이점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소 방대한 범위의 개념과 용어를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SFL이 번역 분석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각 의미 차원별로 살펴보고 큰 그림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문학번역은 번역 시 단지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언어가 표현하는 감정적인 요소와 미학적인 요소도 함께 전달해야 하는 복합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번역을 아우르는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번역 경험이 많지 않은 번역가나 번역 학습자는 번역 전반에 걸쳐 원문 구

조에 집착하여 경직된 번역을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문학번역을 교육할 때 각 의미 차원별 언어 사용 상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함양시켜주고 번역 실습에 적용해본다면, 학습자들은 기존의 습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 방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번역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영어 간 쓰기 방식 차이에 대한 인식 함양 및 번역 실습을 진행해보았다.

### 3. 문학번역 실습 및 인식 함양 과정

#### 3.1 학습자 및 학습 과정

번역 실습에 참여한 학습자는 한 학기동안 통번역개론 수업을 수강한 46명의 통번역 전공 또는 이중 전공 학부생이고, 학습자 모두 영어 학습 기간이 7년 이상 되었다. 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영어 쓰기방식 차이에 대한 학습 전과 후의 인식 변화를 조사해보고, 학습 전후 번역 결과물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어와 영어 간 쓰기 방식 차이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번역에 반영하는 실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SFL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용어 및 개념을 소개하였고, 가능하면 학부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본적인 메타언어와 개념을 설명하였다. 학습자가 기본적인 명칭과 기능에 대해 학습한 후, 한국어와 영어 간 쓰기방식 차이에 대해 이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sup>2)</sup>를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이후 학습자들은 한국어와 영어 간 차이점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실제 번역에 적용해 보았다.

경험적 의미 차원에서는 한국어에서는 행위자와 감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체 또는 인격을 부여받은 기관이지만, 영어에서는 사물, 아이디어, 정황 등 다양한 것이 행위자와 감지자가 되어 행동을 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하였다.

다음, 대인적 의미차원에는 한국어-영어 간에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나 구문, 즉 ‘평가어’의 빈도(frequency)나 강도(intensity)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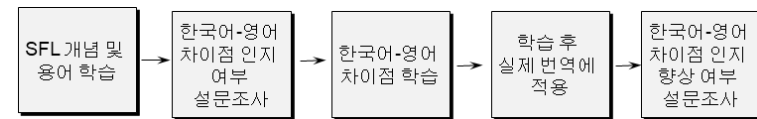
2) 설문조사 전문은 ‘첨부’ 참조.

양이 초점이다. 학습자들은 어떤 표현들을 평가어라고 지칭하는지 우선 학습하였고, 평가어 사용에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 간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인식 현황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후, 한국어는 이러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반면, 영어는 평가어를 좀 더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학습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은 텍스트적 의미차원에서 메시지를 구성해가는 방식과 관련된 응결성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다양한 응결 장치에 대해 학습하였다. 그 다음 한국어와 영어 간에 선호하는 응결 장치가 다르다는 것을 학습자가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어는 특정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여 텍스트의 응결성을 구성하는 반면, 영어는 동일한 반복 보다는 유의어를 사용하여 텍스트 응결성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학습자들은 학습하였다.

즉, 학습 과정을 요약해보면, 학습자들은 경험적, 대인적, 텍스트적 의미차원에서 기본적인 SFL 용어와 기능에 대해 학습한 후, 한국어와 영어 간에 쓰기 방식 상 차이에 대한 인지 여부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설문조사 이후 『채식주의자』에서 세 부분을 발췌하여 차이점에 대한 학습 및 번역 실습을 한 것이다. 발췌한 세 부분은 각각 경험적, 대인적, 텍스트적 의미 차원에서 연구의 초점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학습 후 설문조사를 통해 인지 향상 여부도 파악해보았다.

〈그림 1〉 학습 과정



#### 3.2 학습자 설문조사

설문조사에서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sup>3)</sup>를 사용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고, 학습자들은 문항에 대해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매우

3) 리커트 척도는 반응자들이 주어진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반응자의 태도를 알아보는 평정 척도를 말한다(두산백과).

잘 알고 있음’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였다.

첫 번째 설문문항은 경험적 의미 차원에서 한국어와 영어 간 쓰기 방식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문항 1)

문장 구성 시 주어 역할을 하는 주체(agency)가 한국어와 영어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학습자 응답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2%)	6(13%)	19(41%)	17(37%)	3(7%)

학습자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보통’으로 약 과반수 정도의 학습자가 경험적 의미 차원에서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어와 영어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번역에 적용시켜 본 문항 1-1과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다음과 같다.

(문항 1-1)

문학번역 시 번역가가 주어 역할을 하는 주체를 원문과 다르게 바꿀 수 있다.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
3(7%)	19(41%)	10(22%)	12(26%)	2(4%)

문항 1-1에 대한 설문 결과 흥미로운 점은 약 과반수 정도의 학습자가 문장 주체 관련 한국어-영어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하면서도 번역을 할 때에는 원문의 주체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즉, 번역 시 원문 통사 구조를 변형시키고, 주체를 바꾸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와 영어 간의 쓰기 방식 차이를 학습하여 번역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설문 문항은 대인적 의미 차원에서 한국어와 영어 간 쓰기 방식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문항 2)

평가어 사용 빈도에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학습자 응답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2%)	8(17%)	18(39%)	14(31%)	5(11%)

감정을 표현하는 평가어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39%의 학습자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는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는 의미의 ‘보통’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31%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한국어와 영어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어 사용에 있어서 언어 간 차이를 번역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 2-1과 그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자.

(문항 2-1)

문학번역 시 번역가가 감정 명시화를 위해 원문에 없는 평가어를 추가할 수 있다.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
3(7%)	13(28%)	16(35%)	12(26%)	2(4%)

번역 시 평가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항 1-1에 대한 응답처럼 원문 구조를 변형하는 것만큼 거부감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원문에 무

언가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 답변이 좀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설문 문항은 텍스트적 의미 차원에서 한국어와 영어 간 쓰기 방식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문항 3)

텍스트적 응결성 구성에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학습자 응답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2%)	9(19%)	22(48%)	11(24%)	3(7%)

텍스트를 구성해가는 방식에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 간 차이에 대해서는 과반수 정도의 학습자(48%)가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응답인 ‘보통’을 선택하였다. 이 차이를 번역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 3-1과 그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자.

(문항 3-1)

문학번역 시 번역가가 영어 응결성 구성방식에 따라 단어를 추가하거나 변형할 수 있다.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
0(0%)	6(13%)	10(22%)	27(58%)	3(7%)

문항 3-1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텍스트 구성을 목표 언어 특성에 맞게 매끄럽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번역 시 행위자가 바뀌는 등 원문의 내용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변형이 아닌 구조 변형에는 쉽게 동의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학습자는 경험적, 대인적, 텍스트적 의미 차원에서 한국어와 영어 간에 쓰기 방식 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번역 시 쓰기 방식 차이를 반영하여 경험적 차원에서 행위 주체를 변형하는 것과 대인적 차원에서 평가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다소 크고, 텍스트적 차원에서 구조를 변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번역가가 재량을 발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자 인식 정도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은 경험적, 대인적, 텍스트적 의미 차원에서 두 언어 간 쓰기 방식 차이를 번역 시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학습하였고, 학습 전후 번역 결과물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해보았다. 번역 학습 및 실습을 위해 사용한 텍스트는 『채식주의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3.3 학습 전후 학습자 번역 비교 분석

#### 3.3.1 경험적 의미 차원에서 번역 비교 분석

한국어에서는 맥락 상 주어 가 예측 가능한 경우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채식주의자』의 다음 발췌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어는 화자인 ‘나’라는 것이 쉽게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밑줄 친 마지막 문장에서 주어 생략되었다.

(ST) 나는 욕실의 불을 켜고 들어갔다. 며칠째 영하 십도 안팎의 추위가 계속되던 즈음이었다. 몇 시간 전에 내가 샤워를 했으므로, 그때 물이 튕 슬리퍼가 아직 차갑게 젖어 있었다. 욕조위로 시커멓게 뚫린 환풍구에서 바닥과 벽의 흰 타일들에서 냉혹한 계절의 적막감이 느껴졌다.

이 부분에서 ‘느끼다’라는 정신적 프로세스의 ‘감지자’는 ‘나’이고, 한국어에서는 ‘감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번역할 때 거의 대부분의 학습자는 이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I’를 주어로 하여 번역하였다. 학습자 중 두 학생의 번역 사례를 추출하여 학습 전과 후를 비교해보겠다.



(학습자 #1 학습 전 번역)

I entered bathroom switching lighting. It has been very cold day for several days. Slippers were wet and cold because I took a shower hours ago. I felt loneliness of this cold season from dark ventilation window, white wall and white floor.

그러나 영어에서는 반드시 생명체가 주어라 될 필요가 없고, 무생물이 느끼거나 행위를 하는 구문이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번역 시 주어 기능을 하는 주체를 바꾸고 영어적 특성을 살려서 번역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언어 간 차이 점과 이를 번역 시 반영하는 것에 대해 학습자 #1이 학습 후 수정 번역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 #1 학습 후 번역)

I entered bathroom turning on the light. It has been very cold for several days. Slippers were wet and cold because I took a shower hours ago. Dark ventilation window, white tiles of floor and walls spouted a sense of loneliness of this cold season.

학습 전에는 ‘I felt loneliness’라고 번역했던 정신적 프로세스 구문을 ‘Dark ventilation window...spouted a sense of loneliness’라고 하여 무생물 주체(window, tiles, and walls)가 행위(spouted)를 하는 물질적 프로세스 구문으로 바꾸어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학습자의 학습 전과 후의 번역 사례를 살펴보자.

(학습자 #2 학습 전 번역)

I turned on the bathroom light before I went in. The temperature was nearly ten below zero for a few days. The slippers were still frozen wet since I took a shower several hours ago. I could feel the harsh silence of weather from the coal-black ventilation hole above the bathtub and from the white tiles on floor and wall.

학습자 #2도 마찬가지로 학습 전에는 ‘I could feel the harsh silence of

weather’라는 정신적 프로세스 구문으로 번역하였는데, 학습 후에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학습자 #2 학습 후 번역)

I turned on the bathroom light before I went in. The temperature was nearly ten below zero for a few days. The slippers were still frozen wet since I took a shower several hours ago, splashing water. Harsh silence of weather pervaded the place through the coal-black ventilation hole above the bathtub and the white tiles on the floor and wall.

학습 후 ‘Harsh silence of weather pervaded the place’라는 무생물 주체 물질적 프로세스로 전환하여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학습자가 경험적 의미 차원에서 원문을 고수하지 않고, 영어 쓰기 방식 특성을 살리며 번역하는 방식을 적용해본 것을 볼 수 있다.

### 3.3.2 대인적 의미 차원에서 번역 비교·분석

대인적 의미 차원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사람 및 사물에 대해 평가를 하는 표현인 평가어 사용과 관련하여 영어에서 그 사용 빈도 및 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조사되었다(이창수 2007; 마승혜 2014). 번역 시 평가어를 어떻게 영어 쓰기 방식에 맞추어 조절하는 지를 학습하기 위해 번역해 본 문장은 『채식주의자』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이다.

(ST) 나는 우리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상상한 적이 없었다.

이 문장에 대해 데버러 스미스 번역가는 ‘I had never considered the possibility that our life together might undergo such an appalling change’라고 번역하였다. ‘달라지다’를 ‘change’로 번역하며 그 앞에 부정적 평가어 ‘appalling’을 추가하여 이 문장의 분위기와 감정을 더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학습자의 번역을 비교해보자.

(학습자 #3 학습 전 번역)

I had never imagined our life could change even a little.

학습자 #3의 경우, 번역 시 어떠한 평가어도 추가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였다. 그러나 학습 후에는 다음과 같이 ‘disconcerting’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를 추가하여 ‘변화’에 대한 평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었다.

(학습자 #3 학습 후 번역)

I had never imagined disconcerting change would happen in our life.

학습자 #4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습 전에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였지만, 학습 후에는 평가어를 추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학습자 #4 학습 전 번역)

I had never thought that our life could be changed.

(학습자 #4 학습 후 번역)

I had never thought that our monotonous life could be changed.

위의 경우처럼 학습 후에는 ‘our life’ 대신 ‘our monotonous life’라고 번역하여 ‘life’에 대한 평가어를 추가하였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대인적 의미 차원에서 원문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평가어를 좀 더 빈번하게, 감정을 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영어의 특성에 맞게 번역하는 방식을 적용해 보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어를 추가할 때 문맥 상 인물 및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 하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 과정에서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적 의미 차원에서 학습자 번역 변화를 살펴보자.

### 3.3.3 텍스트적 의미 차원에서 번역 비교 분석

텍스트적 의미 차원에서 응결성을 구성하는 방식이 한국어와 영어 간에 다르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영어의 경우 선행 단어를 단순하게 반복하는 방식 보다는 유의어나 상위의 또는 부분어 관계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응결

성을 구성한다는 것을 학습자들은 학습하였고, 이에 대해 『채식주의자』의 다음 문장을 번역해보며 학습 전후 학습자 번역 변화를 비교해보았다.

(ST)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 얼굴은 낯설었다. 그러나 거래처 사람에게 둘러댔던 변명과 오늘 소개할 시안을 삼십분 안에 정리해내야 했으므로, 더 이상 아내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ST에서 ‘낯설다-이상한’이라는 연결 고리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학습 전 학습자들은 ‘낯설다’와 대응되는 영어 단어인 ‘strange’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응결 장치로 단순 단어 반복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한 후 다음과 같이 다른 단어로 변형하여 응결성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습자 #5 학습 전 번역)

Her face was like a stranger who I haven't seen before. But I had to think about the excuses for the clients and organize the draft proposal which will be introduced today in just half an hour, so I had no room to think about the strange behaviors of my wife anymore.

(학습자 #5 학습 후 번역)

Her face was like a stranger who I haven't seen before. But I had to think about the excuses for the clients and organize the draft proposal which will be introduced today in just half an hour, so I had no room to think about the odd behaviors of my strange wife anymore.

학습자 #5의 경우 학습 전에는 ‘stranger-strange’를 사용하여 연결 고리를 만들었다면, 학습 후에는 ‘stranger-odd’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학습자 #6 학습 전 번역)

Her face was suddenly so strange that I thought I was looking at a stranger. But I had to think of excuses and also arrange the draft proposal to show to the clients in just 30 minutes, so I did not have any time to think about her strange behavior.

(학습자 #6 학습 후 번역)

Her face was suddenly so unfamiliar that I thought I was looking at a stranger. But I had to think of excuses and also arrange the draft proposal to show to the clients in just 30 minutes, so I did not have any time to think about her odd behavior.

학습자 #6의 경우 ‘이상하고 낯설다’는 의미의 연결고리를 학습 전에는 ‘strange-stranger-strange’로 동일 단어를 반복하여 번역하였다면, 학습 후에는 ‘unfamiliar-stranger-odd’로 유의어를 사용하여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학습자가 한국어에서 동일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 응결성을 만드는 방식을 영어 번역 시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의어를 사용하여 응결성을 만드는 영어적 쓰기 방식을 적용해본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학습자 번역 사례는 학습 초점을 잘 파악하여 번역 시 반영한 사례를 추출한 것이고, 학습 결과를 번역에 잘 반영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쓰기 방식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은 크게 향상되었고, 그 결과는 학습 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해보았다.

### 3.4 학습자 인식 변화 결과

이처럼 경험적, 대인적, 텍스트적 의미 차원에서 한국어와 영어 쓰기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번역 시 이 차이점을 어떻게 반영해서 번역할 수 있을지 학습한 후, 학습 전 실시했던 설문조사를 학습 후 다시 한 번 실시해 보고 학습자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경험적 의미 차원에서 한국어와 영어 쓰기 방식 차이에 대한 인식과 번역 시 차이점 반영 여부에 대한 문항 1과 문항 1-1의 응답 결과 차이를 살펴 보자.

(문항 1) 문장 구성 시 주어 역할을 하는 주체(agency)가 한국어와 영어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문항 1에 대한 학습 전 응답률)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2%)	6(13%)	19(41%)	17(37%)	3(7%)

(문항 1에 대한 학습 후 응답률)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0(0%)	0(0%)	7(15%)	24(52%)	15(33%)

위의 표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학습 전에는 문장 내 주체 관련하여 한국어와 영어 간 차이점을 학습자가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하였으나, 학습 후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제고된 것을 볼 수 있다.

(문항 1-1)

문학번역 시 번역가가 주어 역할을 하는 주체를 원문과 다르게 바꿀 수 있다.

(문항 1-1에 대한 학습 전 응답률)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
3(7%)	19(41%)	10(22%)	12(26%)	2(4%)

(문항 1-1에 대한 학습 후 응답률)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
0(0%)	0(0%)	2(4%)	27(59%)	17(37%)

번역 시 원문과 다르게 주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습자들의 거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학습 후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대인적 의미 차원에서 한국어와 영어 쓰기 방식 차이에 대한 인식과 번역 시 차이점 반영 여부에 대한 문항 2와 문항 2-1의 응답 결과 차이를 살펴 보자.

(문항 2)

평가어 사용 빈도에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문항 2에 대한 학습 전 응답률)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2%)	8(17%)	<b>18(39%)</b>	14(31%)	5(11%)

(문항 2에 대한 학습 후 응답률)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0(0%)	0(0%)	3(7%)	<b>23(50%)</b>	<b>20(43%)</b>

이전 결과와 유사하게 학습자들은 평가어 사용 빈도 관련 한국어와 영어 간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번역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2-1)

문학번역 시 번역가가 감정 명시화를 위해 원문에 없는 평가어를 추가할 수 있다.

(문항 2-1에 대한 학습 전 응답률)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
3(7%)	<b>13(28%)</b>	<b>16(35%)</b>	12(26%)	2(4%)

(문항 2-1에 대한 학습 후 응답률)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
0(0%)	0(0%)	3(7%)	<b>21(45%)</b>	<b>22(48%)</b>

학습 이전에는 번역가가 번역 시 평가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다소 부정

적이었는데, 학습 이후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영어 쓰기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적 의미 차원에서 한국어와 영어 쓰기 방식 차이에 대한 인식과 번역 시 차이점 반영 여부에 대한 문항 3과 문항 3-1의 응답 결과 차이를 살펴보자.

(문항 3)

텍스트적 응결성 구성에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문항 3에 대한 학습 전 응답률)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1(2%)	9(19%)	<b>22(48%)</b>	11(24%)	3(7%)

(문항 3에 대한 학습 후 응답률)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0(0%)	1(2%)	4(9%)	<b>29(63%)</b>	<b>12(26%)</b>

학습 전에는 전반적인 텍스트를 구성해가는 방식 차이에 대해 애매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학습 후에는 명확하게 인지하게 된 것을 응답률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영어로 번역 시 영어의 텍스트 구성 방식에 맞게 번역 하겠는지에 대한 인식 변화 결과를 살펴보자.

(문항 3-1)

문학번역 시 번역가가 영어 응결성 구성방식에 따라 단어를 추가하거나 변형할 수 있다.

(문항 3-1에 대한 학습 전 응답률)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
0(0%)	6(13%)	10(22%)	<b>27(58%)</b>	3(7%)

(문항 3-1에 대한 학습 후 응답률)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
0(0%)	0(13%)	2(4%)	29(63%)	15(33%)

번역 시 영어 구성방식에 맞게 반복되는 단어를 유의어로 바꾼다든지 하는 전략은 번역 시 원문 구조를 변형시키거나 원문에 없는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 전에도 이와 관련된 쓰기 방식 차이를 번역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습자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학습 후에는 이러한 번역 방식에 대해 좀 더 확신을 갖게 된 것을 설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험적, 대인적, 텍스트적 차원에서 한국어와 영어 간 쓰기 방식 차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향상되었고, 이 차이를 문학번역 시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번역 시 지나치게 원문 구조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학습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학습 초점에 대해 교육하고 학습자의 인식 변화를 조사해보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것은 당연히 예측 가능한 설문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제2외국어(본고의 경우 영어)로의 번역 학습 시 첫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그 언어 사용 방식 상 특성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고(Rodríguez-Inés 2014), 이처럼 양 언어 간 쓰기 방식 차이에 대해 좀 더 인식이 제고되면 향후 학습 과정 전반에 걸쳐 좀 더 창의적이고 실험적이 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Soons 2008).

#### 4. 결론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후 한국에서는 문학 번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학 번역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보이는 특징이자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이 번역 시 원문을 지나치게 고수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어와 영어의 경우 쓰기 방식 상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도 번역 시 원문에서 탈피하여 좀 더 영어적 특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채식주의자』 번역에 대한 오역 지적도 많고 모두 이 번역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번역이 해외 독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수용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학번역 전략 중 하나로 인지하고 적용해볼 수 있도록 번역 방식을 분석해보고 번역 교육 시 활용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쓰기 방식 차이를 SFL을 바탕으로 경험적, 대인적, 텍스트적 의미 차원에서 분석하고, 번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 후, 이에 대한 학습자 인식 제고 및 번역 실습을 진행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다소 방대한 의미 범주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낱실과 씨실이 얽히고설켜 하나의 직물을 만들어가듯이 텍스트도 여러 의미 층위가 겹쳐 전체 의미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각 의미 층위별 번역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텍스트를 번역으로 구성해가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굳이 SFL의 메타언어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분석하고 적용해본 이유는 이것이 텍스트 개념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학습하며, 좀 더 효율적으로 자신의 텍스트를 구성해가는 방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번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학습 전에는 두 언어 간 차이에 대해 어렵듯이 인지하고 있었는데 학습 후 좀 더 명확하게 차이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학습 전에는 그 차이점을 번역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면 학습 후에는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은 원문 구조를 지나치게 고수하는 습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을 모색해볼 수 있었다.

이처럼 원문의 언어적 특성을 지우고 목표 언어의 특성을 살려 유창하고 투명한 번역을 지향하는 것에 대해 베누티(1995)는 영미문화권의 “자민족 중심 폭력(ethnocentric violence)”(Venuti 1995: 21)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양 언어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목표 언어 특성에 맞는 번역을 학습하는 것에 대해 두 가지 함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어와 한국 문학은 세계 문학 시장에서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있는 언어와 문학이다(마승혜 2014, 2017a). 이러한 경우 모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번역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외국어로의 번역 교육 시 목표언어 특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학습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Rodríguez-Inés 2014). 이 과정에서 SFL의 개념과 용어를 적용하여 교육할 경우 좀 더 과학적으로 텍스트를 분석해보고 활용해볼 수 있는 접근방식이 될 수 있고, 번역 시 원문 구조를 고수하는 학습자에게 문학 번역에 접근하는 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글쓰기 방식 차이 인식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을 고민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채식주의자』가 2016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후 한국 문학과 문학번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학번역 전략 및 교육적 접근법에 대한 체계적·비판적 논의를 진행한다면 활성화되기 시작한 문학번역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많지 않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단기간 진행한 연구이지만, SFL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접근 방식, 분석, 결과 적용은 한국작품의 영어 번역 발전을 모색하는 시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한국문학이 세계 문학시장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마승혜 (2014) 「문학번역가의 모국어와 번역 성향의 상관관계 연구-평가어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박사논문.
- 마승혜 (2017a) 「폴리시스템(Polysystem) 이론에 관한 고찰 및 이론 진화를 위한 새로운 논의」, 『번역학연구』 18(1): 41-64.
- 마승혜 (2017b) 「기회화되기 어려운 인간 능력과 문학번역 능력 비교·고찰 및 논의」, 『통번역학연구』 21(3): 55-77.
- 이지영 (2016) 「문화이론에 기반한 ‘K-beauty’ 광고번역텍스트의 담화분석」, 『통번역학연구』 20(1): 99-123.
- 이창수 (2006) 「영한 번역에서의 동사성 체계 변화 연구 - 무생물 주체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8(1): 155-175.
- 이창수 (2007) 「영역된 관광안내 텍스트의 기능적 효과성 분석연구」, 『통역과

번역』 9 (2): 155-180.

이희재 (2009) 번역의 탄생. 서울: 교양인.

한강 (2007) 채식주의자. 경기도: 창비.

Altarriba, Jeanette., Basnight, Dana M and Canary, Tina M (2003) ‘Emotion Representation and Perception Across Cultures’, *Psychology and Culture*, 4(1): 1-17.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offin, Caroline and Donohue, James (2012) ‘Academic Literacies and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How do They Relate?’,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11: 64-75.

Crane, Cori (2016)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L2 Personal Letter Writing: A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Analysis of Student Texts in German’, *Journal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German* 49(2): 122-139.

Gibbons, Pauline (2006) *Bridging Discourses in the ESL Classroom*, New York: Continuum.

Hall, Edward Twitchell (1977) *Beyond Culture*, New York: Anchor Book.

Halliday, Michael Alexander Kirkwood (1978)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London: Arnold,

Halliday, Michael Alexander Kirkwood (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second edition, London: Arnold.

Hammond, Jennifer (2006) ‘High Challenge, High Support: Integrating Language and Content Instruction for Diverse Learners in an English Literature Classroom’,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5(4): 269-283.

Hara, Kazuya and Kim, Min-Sun (2004) ‘The Effect of Self-Construals on Conversational Indirect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8(1): 1-18.

Hasan, Ruqaiya (1984) ‘Coherence and Cohesive Harmony’ in James Flood (ed) *Understanding Reading Comprehension: Cognition, Language, and the Structure of Prose*, Newark: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181-219.

Hatim, Basil and Mason, Ian (1990)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London

- and New York: Routledge.
- Hinkel, Eli (2001) 'Matters of Cohesion in L1 and L2 Academic Texts', *Applied Language Learning* 12(2): 111-132.
- House, Juliane (1977/1997)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 House, Juliane (2001) 'How Do We Know When a Translation is Good?' in Erich Steiner and Colin Yallop (eds) *Exploring Translation and Multilingual Text Production: Beyond Content*,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127-160.
- Kazemian, Bahram and Hashemi, Somayyeh (2014)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Barack Obama's 2012 Speeches: Views from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and Rhetoric',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Studies* 4(6): 1178-1187.
- Kim, Heejung S and Sherman, David K (2007) 'Express Yourself: Culture and the Effect of Self-Expression on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1-11.
- Kim, Mira (2009) 'Meaning-oriented Assessment of Translation' in Claudia V. Angelelli and Holly E. Jacobson (eds) *Testing and Assessment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23-157.
- Kirk, Sung Hee (2004) 'Contrastive Analysis of Cohesive Devices in English Source, Korean Target and Comparable Korean Texts',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5(2): 163-184.
- Lemke, Jay (1992) 'Interpersonal Meaning in Discourse: Value Orientations' in Martin Davies and Louise Ravelli (eds) *Advances in Systemic Linguistics: Recent Theory and Practice*, London and New York: Pinter, 82-104.
- Mah, Seung-Hye (2015) 'Qualitative Analysis of Inanimate Subject+Active Verb Structure in Editorials and its Pedagogical Implications in Korean-into-English Translation', *The Journa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Education* 13(2): 67-94.
- Mah, Seung-Hye (2016) 'A Comparative Study on Cohesive Devices Used in Describing Participants in Korean and English Texts and Its Pedagogical Implications in Kor-Eng Translatio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8(3): 23-53.
- Martin, James R. and White, Peter R. R (2005) *The Language of Evaluation: Appraisal in English*, London: Palgrave.
- Master, Peter (1991) 'Active Verbs with Inanimate Subjects in Scientific Prose',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0: 15-33.
- Mirzapour, Fatemeh and Ahmadi, Maryam (2011) 'Study on Lexical Cohesion in English and Persian Research Articles', *English Language Teaching* 4(4): 245-253.
- Moore, Jason and Schleppegrell, Mary (2014) 'Using a Functional Linguistics Metalanguage to Support Academic Language Development in the English Language Arts', *Linguistics and Education* 26: 92-105.
- Polias, John and Dare, Brian (2006) 'Towards a Pedagogical Grammar' in Rachel Whittaker, Mick O'Donnell & Anne McCabe (eds) *Language and Literacy: Functional Approaches*, London: Continuum, 123-143.
- Rodríguez-Inés, Patricia (2014) 'Using Corpora for Awareness-raising Purposes in Translation, Especially into a Foreign Language (Spanish-English)', *Perspectives* 22(2): 222-241.
- Smith, Deborah 윌슨김 (2015) *The Vegetarian*, London: Portobello Books.
- Soons, Maria Pritc (2008) *The Importance of Language Awareness*, Malm: Malmö högskola.
- Swales, John M. and Feak, Christine (2004) *Academic Writing for Graduate Students: Essential Tasks and Skills*,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Thompson, Geoff (2004)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Trosborg, Anna (2002) 'Discourse Analysis as Part of Translator Training' in Christina Schäffner (ed) *The Role of Discourse Analysis for Translation and in Translator Training*, Clevedon/Buffalo/Toronto/Sydney: Multilingual

Matters, 9-52.

- Vaid, Jyotsna, Choi, Hyun, Chen, Hsin-Chin and Friedman, Michael (2008) 'Perceiving and Responding to Embarrassing Predicaments across Languages', *The Mental Lexicon* 3(1): 121-147.
-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Williams, Geoff (1998) 'Children Entering Literate Worlds: Perspectives from the Study of Textual Practices' in Frances Christie and Ray Misson (eds) *Literacy and Schooling*, London: Routledge, 18-46.
- Williams, Geoff (2004) 'Ontogenesis and Grammaticals: Functions of Metalanguage in Pedagogical Discourse' in Geoff Williams and Anabelle Lukin (eds) *The Development of Language: Functional Perspectives on Species and Individuals*, London: Continuum, 241-267.
- Woodward-Kron, Robyn. (2009) 'This Means That...: A Linguistic Perspective of Writing and Learning in a Discipline',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8: 165-179.

<인터넷 자료>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Armistead, Claire (2018) 'Lost in (mis)Translation? English Take on Korean Novel Has Critics Up in Arms', Available at <https://www.theguardian.com/books/booksblog/2018/jan/15/lost-in-mistranslation-english-take-on-korean-novel-has-critics-up-in-arms>.

Smith, Deborah (2018)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Translation', Available at <https://lareviewofbooks.org/article/what-we-talk-about-when-we-talk-about-translation/#!>

Yun, Charse (2017) 'How the Bestseller 'The Vegetarian,' Translated from Han Kang's Original, Caused an Uproar in South Korea', Available at <http://www.latimes.com/books/jacketcopy/la-ca-jc-korean-translation-20170922-story.html>

[Abstract]

### Developing SFL-based Language Awareness on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Writing Styles and Its Implications for Literary Translation

Mah, Seung-Hye  
(Dongguk University)

Literary translation in Korea is gaining much attention after the Korean novel *The Vegetarian* won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in 2016, and students in translation courses also express keen interests in literary translation. One of the problems that Korean students show, however, is that they cling too much to source text structures while translating. At the beginning of this research, students were vaguely aware of the differences in writing styl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but they did not clearly recognize how the two languages are different and how they reflect the differences in their translation. Therefore, this article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writing styles and sorted them out according to the three meaning levels in SFL; experiential, interpersonal, and textual levels. Based on the systematically categorize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students learned and practiced how to reflect the differences in their translation with texts excerpted from *The Vegetarian*. After their learning, their awareness on the differences had been greatly enhanced, and they started making attempts not to adhere closely to the source text structures, ultimately taking their first step into a more natural and readable target text.

▶ Keywords: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Literary Translation, Linguistic Awareness, Writing Style

▶ 주제어: 체계기능언어학, 문학번역, 언어인식, 쓰기방식



마승혜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영어통번역학과 강사

shm213@gmail.com

관심분야: 번역 교육, 문학 번역, 체계기능언어학

논문투고일: 2018년 11월 6일

심사완료일: 2018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5일

[첨부]

학습자 인식 설문조사

※ 해당 사항에  하시오.

(문항 1) 문장 구성 시 주어 역할을 하는 주체(agency)가 한국어와 영어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있음       매우 잘 알고있음

(문항 1-1)

문학번역 시 번역가가 주어 역할을 하는 주체를 원문과 다르게 바꿀 수 있다.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

(문항 2)

평가어 사용 빈도에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있음       매우 잘 알고있음

(문항 2-1)

문학번역 시 번역가가 감정 명시화를 위해 원문에 없는 평가어를 추가할 수 있다.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

(문항 3)

텍스트적 응결성 구성에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 전혀 모름       모름       보통       알고있음       매우 잘 알고있음

(문항 3-1)

문학번역 시 번역가가 영어 응결성 구성방식에 따라 단어를 추가하거나 변형할 수 있다.

-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